

## 창간 18주년 기념사

오늘부터 돼지고기 수입자유화,  
새로운 각오로  
국제경쟁에 임하자!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양돈업계의 최일선에서 양돈농가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월간 양돈지가 7월1일로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지가 양돈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전문잡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과 관련기관·단체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 양돈지는 지난 18년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양돈업계에 세계의 선진 양돈기술과 최신 정보를 제공해왔고, 양돈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창간 18주년을 맞아 월간 양돈은 그동안의 경험과 편집의 노하우를 살려 양돈농가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양돈업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양돈업계의 최대 관심사였고, 또한 우리나라 양돈업계의 생존권이 걸려있어서 누구나 관심을 기울여왔던 돼지고기 수입이 이달 1일부터 완전자유화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격만 맞으면 오늘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돈업계가 국내 경쟁시대에서 국제 경쟁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맞이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각오로 국제경쟁에 임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돼지고기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첫 날을 맞아 양돈농가 여러분에게 몇가지 사항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수입자유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와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제한된 국내 경쟁시대의 사고와 행동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의 돼지고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 마인드와 프로의식을 갖고, 내가 업계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모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돼지전염병 박멸사업에 양돈농가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  
**건국이래 최초로 경험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각오로  
 국제경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

대만의 구제역 발생 예에서 보듯이, 돼지 전염병은 한 나라의 양돈산업 자체를 순식간에 황폐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크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로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양돈산업과 관련산업에 4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행히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물론,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등 주요전염병 박멸정책에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조기에 이들 질병을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수입자유화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값싸고 품질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육체계와 도축·가공·유통시스템으로는 외국 돼지고기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돈장의 돼지 생산에서부터 유통 마지막 단계까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양돈업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넷째, 민간 주도의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양돈업계의 문제점 해결과 산업 발전을 모두 정부에 의지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업계의 문제는 업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의 입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분노처리와 인력난, 3D기피 현상, 님비 현상 등으로 양돈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양돈시설의 자동화와 합리적인 경영시스템 도입,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생산비를 최소한 10% 이상 절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 축산인이 힘을 모아 축산업계의 십 수년래 숙원사항인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이와같은 열의와 끈질김을 간직하면서 이제는 우리 양돈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지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수입개방이 된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양돈업계 발전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월간 양돈지는 수입자유화 시대에도 양돈농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창간 18주년을 맞아 양돈업계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변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